

## 반다이산 분화~현재까지의 발자취

1888년 7월 21일의 반다이산 분화는 477명의 희생자를 낳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잃었습니다. 수증기 폭발형 분화로 반다이산의 4개 봉우리 중 하나가 산체 붕괴해 궤멸적인 암설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11개의 마을이 매몰되었고 매우 많은 양의 암석과 토사가 우라반다이 일대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일부는 주요 하천인 나가세가와 강을 막아 광범위에 걸친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강을 막은 퇴적물로 인해 300개 이상의 호소가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오야마즈미 신사의 부지 내에 있었던 도리이는 히바라 호수에 가라앉아 있지만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면 도리이의 윗부분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궤멸적 피해가 발생한 후 정부 주도 하에 삼림 재생과 지역 복원 지원이 일치단결해 이루어졌습니다. 복원 활동이 현저히 진행된 결과, 1950년대에는 인기 관광지가 되어 정식으로 반다이아사히 국립공원이라 명명되었습니다. 이 국립공원은 시원한 기후, 아름다운 호수와 늪, 수많은 하이킹 코스와 캠핑장, 다양한 액티비티 등으로 관광객들을 매혹시키고 있습니다.